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5차 세션 , 요한 복음의 목적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이 요한 신학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5차 세션, 요한 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넷째 복음의 신학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고 주님을 찾도록 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아들, 우리의 주님, 구세주, 그리고  
당신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를 통해 당신의 임재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네 번째 복음서의 목적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요한  
복음서를 쓸 때 사용한 스타일과 복음서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21장의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서문, 1절에서 18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이나 1장 19절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 있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 복음의 목적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도입니다. 요한은 20장에서 전도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부활은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라는 사실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1세기에 남자의 증언만큼  
중요하지 않았을 여성의 증언입니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신학자들은 비판적인 유형이야. 그게 우리가 훈련받은 방식이야.

수년 동안 저는 "In the Garden"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장미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고,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 저는 혼자 정원에 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성경적 내용이 없는 초보적인 노래라니.

제 말은, 그냥 감상주의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인가 찬송가집 한 페이지의 사진을 복사한 걸 봤는데, 정원에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

정원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는 나와 함께 걷고, 아름다운 찬송가예요. 역사적 맥락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는 나와 함께 걷고, 나와 이야기하고, 내가 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 세상에. 어쨌든, 그 출현 이후, 도마가 없는 제자들에게, 24절.

이제 디디모라고 불리는 12명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주 예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믿지 않겠습니다. 강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기쁩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에게 은혜로우신 것은 확실합니다. 도마의 경우가 보여주듯이요. 8일 후에 그의 제자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대고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믿지 말고 믿어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내는 특별한 초대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 재능, 성향, 등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의심하는 사람에게 친절하십니다. 도마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지요. 일부 컬트는 이 구절을 잘못 번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 남자의 얼굴을 가리키며 그를 주님이자 신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부르는 유대인은 신의 사람입니다. 매우 적절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

그런 다음 목적 진술이 나옵니다. 요한, 그것은 요한 1서에서 그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씁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여러분이 여기서 영생을 얻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요한은 선택적이었습니다.

그는 공관복음서에 이어서 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곱 가지 기적을 선택했고, 그 중 일부를 표징에 맞는 설교와 결합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여러분이 믿도록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들은 가장 최근의 계산은 99보다 100이 더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텍스트 비평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98번입니다. 사실, 네 번째 복음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 약속된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좌를 영원히 차지하도록 보내진 신성한 왕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이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 믿음, 언어적 형태,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이 목적 진술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1237이 먼저 쓰여졌지만, 이 두 구절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보다 먼저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 손은 12장이 될 것입니다.

이 손은 20장입니다. 그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열두, 서른일곱. 그는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청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책의 개요입니다. 표징의 책의 청중은 유대인 세계, 세계, 유대인, 복음 전체의 청중, 특히 영광의 책의 청중은 제자들입니다. 13:1에서 예수께서는 그를 다락방으로 인도하시고 문을 닫으십니다.

더 이상은 아니야. 세상이 바로 초점이야. 오, 그가 말하는 것은 세상에 관한 거야.

그는 20장에서 요한의 대명령 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7장, 위대한 제사장 기도에서도 그는 전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의 청중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닙니다.

그의 청중은 열두에서 하나를 뺀 열한 제자입니다. 그가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으며,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학자들 사이에는 요한 복음의 주된 목적이 전도라는 데에 대한 의견 일치가 큼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닌 듯합니다. 책 전체의 목적? 물론입니다.

하지만 표징의 책, 영광의 책, 실례합니다. 특히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게 추가적인 목적이 있는 듯합니다. 사실, 그 주된 목적은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의 교화인 듯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에 대한 겸손한 봉사뿐만 아니라 매일 죄를 용서받는 것의 필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을 약속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박해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영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합니다.

이 모든 주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화, 제자들을 세우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전도가 주된 목적입니다. 작별 담화는 교화의 이차적인 목적입니다.

17장. 대제사장 기도의 목적은 전도가 아닙니다. 오, 전도가 그것에서 나오지만, 그 목적은 제자들이 그의 떠남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제자들의 거룩함과 연합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아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오실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희망이라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이 이들을 데려가시고, 당신이 제게 주신 이들이 제가 있는 곳에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창조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의 1순위 주제이자 목적은 전도라고 확신합니다. 작별 담화와 대제사장 기도에서 교화라는 2차적 목적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13장과 17장.

확신은 없지만, 아마도 변증론이라는 사소한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1장에서 이미 나dana엘이 있었는데, 빌립이 나dana엘을 찾았죠.

빌립은 나dana엘의 증인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유대교 와 두 가지 유대인의 종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시므온,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 안나, 사가랴, 세레 요한의 아버지, 요한 자신, 그리고 제자들은 매우 다른 범주의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유연합니다.

그들은 인상에 강하고, 다행히도 예수께서 그들을 인상 깊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dana엘, 빌립이 나dana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45장,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했고 선지자들도 그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메시아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게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실 메시아는 구약성서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되지만, 그 개념은 확실히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나dana엘의 인간의 아들, 7장, 이사야서 52, 53장 끝에서 주님의 고난받는 종. 위대한 다윗 왕은 사무엘하 7장, 이사야 9장,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도 약속했습니다. 나dana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도시는 나쁜 평판을 받았고, 마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좋은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나dana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에게는 속임수가 없구나.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할 수 없습니다. 순진한 이스라엘인, 열린 사람, 열린 마음을 가진 인간, 경건한 사람.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dana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당신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초자연적인 지식입니다. 그것은 표징이 아니라, 공관복음서에서 예수가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예수, 우리는 나dana엘이 그렇게 속기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멀리서 그를 볼 수 있었고, 나dana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를 놀라게 한 초자연적인 지식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dana엘은 말했습니다, 랍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는 옳습니다. 아들은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3장 초반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님, 야훼는 파라오가 자신이 사랑하고 독수리 날개에 태워온 아들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을 매우 화가 났습니다. 호세아도 9 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당신의 아들을 데려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초반에 신은 파라오에게 무엇을 할지 예언합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은 신을 위한 집,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다윗을 위한 집, 왕조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영원히 통치할 왕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약과 복음서에서 이미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실제로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이며, 마리아를 통한 혈통입니다. 필요하다면 요셉을 통해서도 공식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문자적인, 육체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원한다면 우리는 그를 그의 계부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칭호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28:12에서 야곱의 사다리에 대한 인용문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다니엘아, 너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나중에 쓴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한 분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저는 전체 이야기와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유대인을 감안할 때, 나다니엘과 예수가 그에게 한 말을 변증, 즉 사소한 변증의 화음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를 큰 속임수가 있는 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의 열한 제자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도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특히 민족적 이스라엘의 미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주의자들, 심지어 개혁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합의에 가깝습니다. 저는 존 머레이, 토마스 슈라이너, 더글러스 무, 앤서니 호케마를 생각하는데, 저는 그들과 같은 리그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동의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혈통적 후손들이 주님을 알게 될 미래를 가르칩니다. 저는 모든 주요 종말론적 주제는 이미와 아직이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이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많은 유대인의 회심에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큰 수확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변증의 밑바탕을 봅니다. 이 구절은 예수에 대한 증인의 부분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재판을 받고 있고, 바로 서론에서 세례자 요한이 증인이고, 빌립은 나dana엘을 증거하고, 안드레는 베드로를 증거하지만, 그 일에서, 나dana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서, 우리는 변증의 밑바탕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사소한 목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함께.

니고데모는 네 번째 복음서에 세 번 등장합니다. 3장에서 그는 예수를 찾으러 옵니다. 저는 그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진지한 구도자로 생각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를 공격하거나, 불쾌한 질문으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진심으로 틀렸고, 예수님은 그 점에 주의를 환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입니까? 당신은 거듭남에 대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영을 보내어 당신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당신에게 살과 같은 마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따듯하고 열린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에스겔 36장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는 이러한 것들을 알았어야 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그러나 무례하지 않게 그를 꾸짖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나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와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라 . 그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물론, 요한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성령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말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남이 세상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다시

또는 위에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거듭남이 두 번째 탄생일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탄생이라면, 어떻게 거듭남이 세상적인 것입니까? 답은 그것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이예요. 위에서 온 것이지만, 훨씬 아래에 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죄로 죽은 땅에 있는 죄인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하늘의 일, 즉 아버지의 임재와 거룩한 천사들, 그런 종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제자리에 앉았고, 그는 불려졌고, 그가 알아야 할 것을 몰랐다는 이유로 그 일을 맡았습니다. 제 말은, 그는 위대한 구약성경 교사였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리고 그는 적어도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요한 복음에서 니고데모가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물론, 평소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오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그에 대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를 체포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줄 사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표현으로 몇 번 더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표현에 대답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손을 대고 싶어했지만 그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관리들은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속았습니까? 권위자들 중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들, 권위자들? 하지만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받았습니다. 다시 율법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전에 그에게 찾아갔었는데, 편집이나 설명적인 코멘트를 하며, 이 인물을 3장에서 밤에 예수에게 찾아온 사람으로 식별했고, 그들 중 한 명이었고, 바리새인 중 한 명이 믿지 않더라도 예수는 공정한 심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은 폭도들이 율법이 없다고 비난했고, 니고데모는 우리의 율법이 먼저 그에게 심리를 해주고 그가 하는 일을 배우지 않고 사람을 판단합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불타는 증거입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는 리더의 평가에서 잘못된 팀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전 경찰이 그를 데려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교사이자 바리새인인 산헤드린 중 한 명은 예수가 공정한 심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7장 52절. 당신도 갈릴리 출신입니까? 찾아보고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글썄요, 요나는 갈릴리에서 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더 이상 선지자가 없거나 그 이후에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불신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인 사회의 일원이며,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는 제자리에 앉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를 단번에 거부하도록 미루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흥미를 느끼고, 여기서 그는 적어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권리를 위해 일어섭니다.

위대한 결론은 19장에 있는데, 산헤드린의 일원인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몸과 공개적으로 동일시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에게 예수와 그의 믿음과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죽은 메시아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아직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9:38, 38.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를 비난하며,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도록 요청했고, 빌라도는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이전에 밤에 예수께 왔었고, 7장뿐만 아니라 19장에도 설명이 있어서 니고데모를 놓치지 않도록 설명이 있는데,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가져왔는데, 무게가 약 75파운드였습니다. 여기서서는 무초 디네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그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몸을 가져다가 향료와 함께 린넨 천으로 묶었는데, 유대인의 장례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는 정원이 있었고,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준비일, 그 날,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눕혔습니다. 니고데모를 불타는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제게는 그가 나와서 마치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동일시함으로써 증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일종의 밑바탕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력은 아니고, 보조적인 추진력도 아니지만, 제게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건국에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의 그의 마지막 행동, 기록된 그의 마지막 행동은 그들과 그들이 예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9장의 눈먼 사람, 변증적 모티브가 있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장에서 변증적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 표지판 아래에서 더 작업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눈먼 남자를 고쳐주셨는데, 전례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감사했고, 그 남자는 대담했습니다.

9:22.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까? 9:19. 당신들이 말하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는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그의 부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아들임을 알고 있으며,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인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성인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요. 글썄요, 존은 우리에게 또 다른 편집적 의견을 줍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요한 복음이 반유대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여기서 비역사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회당 예배에 포함된 공식적인 저주는 분명 나중에 시모나 에즈라의 18가지 축복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네 복음서 모두에서 예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산헤드린이 합의한 공식적인 법령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공식 기도문의 일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를 저주할 테니까요. 네, 그건 아직 여기 없습니다. 요한이 썼을 때조차도요.

하지만 그 시작은 그들이 이 회당 회중에게 한 말에서 반영됩니다. 24절.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임을 압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웃기죠. 요한 복음에는 유대인들을 미치게 만드는 증거적 변증이 있습니다.

여기 나사로가 그의 명예를 기리는 연회에 참석한 모습이 있습니다. 12장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사로에게 사형 선고장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소생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그의 증거적 변증론을 미워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부모가 아니요, 그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기만 하면 됐어요. 그는 조금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는 우리 아들이에요.

그는 시력을 잃고 태어났어요. 그 이상은 알 수 없어요. 오, 맏소사, 이 남자 정말 좋아해요.

나는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본다. 그는 너에게 무엇을 했니? 너는 어떻게 눈을 뜨게 했니? 나는 이미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듣지 않을 거야. 그가 간다.

왜 다시 듣고 싶어?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또한, 그 남자는 예수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의 이해는 그가 성찰하면서 움직인다. 글썄, 그가 순종하면서, 그는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다고 믿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는다.

물론 그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글썄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확실히 신으로부터 왔습니다.

챗터가 끝날 때쯤이면 그는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 그는 리더들과 맞섰습니다. 냉소, 아이러니, 냉소입니다.

놀랍네요. 제게는 웃기기도 합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요? 오, 그들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들은 그를 욕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어머, 그들은 이 작은 녀석을 불태웠습니다.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왜,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나 그는 내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심을 아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느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느니라.

좋은 변증입니다. 이 사람이 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죄로 태어났어요, 눈먼 거지.

당신은 전에 눈먼 거지였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는 그의 부모가 받을까 두려워했던 운명을 받았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찾으셨고, 당신은 나머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주된 목적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도입니다. 영광의 책의 앞부분, 작별 담화, 대제사장 기도의 이차적인 목적은 교화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로 전도로 보지 않습니다.

오, 그것은 전도에 기여하는데, 교화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전하는 사도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셋째, 밀바탕은 주요 아이디어가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며 세 번째라고 불릴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나다니엘에게는 사과의 밀바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엔 분명하지 않아. 그는 간사함도, 속임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공관복음서를 읽은 후에, 특히 속임수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글을 읽어야 한다고 제안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과 바리새인 동료들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교사로서 예수를 옹호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에서 그는 옹호하고 7장에서 그는 자신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과 동일시합니다.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변증 모티프의 전형은 교육을 받지 못한 눈먼 사람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저항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토종 신학을 통해 예수를 옹호합니다.

그는 신을 대신해 말한다. 신은 그의 아들의 표징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전직 눈먼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나중에 9장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의 아이러니하고 풍자적인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서의 목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다음 강의에서 공개하고 싶지만, 적어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도록 합시다.

예수의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 사실 그가 내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8장 마지막에 있는 위대한 진술,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존재했다가 포함될 것이지만, 이 측면에서 나는 존재했다는 진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진술들은 이 패턴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존재했다가, 그리고 술어 주격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빵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문입니다.

길, 진실, 그리고 삶. 선한 목자. 사실, 여기 내 노트는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참 포도나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전체를 큰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한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때때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서는 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신을 대신해 말한다. 오, 그는 인간으로서 신을 대신해 말한다. 하지만 그는 신성한 인간으로서 신을 대신해 말한다. 와우.

그는 구약성서의 인물들을 취해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두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저는 전에 14.6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일곱 가지 다른 것들이지만 일곱 가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세 가지 다른 의미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의미는 14.6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면에서 매우 질서 있고 도움이 됩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구세주요, 진리요, 계시자요, 생명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길이다.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 14장의 맥락에서, 나는 우리의 휴식 전에 이것을 할 것이다.

14장의 맥락에서 예수님은 방이 많은 그의 아버지의 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다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나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을 보내어 당신과 함께 있게 할 것입니다. 돕는 자.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paracletos* , *paraclete*. 마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 신을 믿으십시오.

나도 믿으라, 14:1.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방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두 번째 오심에 대한 예언의 담대한 진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있을 수 있도록 너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안다. 토마스는 정직함과 직설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주님,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그는 길, 도로를 의미하는 가장 어려운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하늘 집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습니다.

와. 그것은 배타성의 진술입니다. 하늘 아래 사람들 사이에 주어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 요셉과 마리아는 모두 그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구원하시거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천상의 집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그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입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진리인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진리의 화신입니다.

그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 그리고 서론에서 보았듯이, 그는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덕으로 신을 드러냈습니다.

3절. 그것은 모든 창조된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비추는 신의 계시였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일반 계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자는 말씀인 로고스입니다.

말씀은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자 태양, 말씀, 빛,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 육신을 입기 전에 하나님을 계시했습니다. 요한은 육신을 입힌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은 큰 도약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의 두 가지 위대한 그리스도론적 주제는 예수가 생명을 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numero uno일 것입니다. 하지만 numero dos는 그가 계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 없던 아버지를 알립니다. 그가 '나는 진실이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나는'이라는 말을 볼 것입니다. 그는 구세주라고 말하고, 그는 구세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방금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계시합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입니다.

대부분의 표지판의 주요 추진력은 5입니까? 1, 2, 3, 4, 5, 6. 14, 6을 세면 물론 두 배로 세어집니다. 14, 6은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하나의 말로 결합한 것입니다.

일곱 가지의 '나는'이라는 말 중 다섯 가지는 내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시는 자, 영원한 생명을 베푸는 자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주권의 관점에서, 아버지 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에 관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둘 다 사실입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일곱,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 6장. 세상의 빛, 8장에서 언급되고 9장에서 전개됨. 나는 문, 10장.

길, 진리, 선한 목자, 10. 길, 진리, 생명, 14, 6, 모든 말씀의 의미를 요약,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 11장에서는 부활, 생명. 다음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이 요한 신학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5, 요한 복음의 목적입니다.